

MIC-35





네트워크 기능으로 더욱 강력해진 MG-35

최근 디빅스(DiVX)플레이어 등 홈 멀티미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저장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추세는 외부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이른바 ‘외장의 차별화’와 내부 기능 개선을 통한 ‘내부 성능 극대화’ 등 두 가지다. 이중 최근 출시된 에이엘테크의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HDD형 디빅스플레이어 미디어게이트 MG-35가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네트워크 기능으로 더욱 강력해진 MG-35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다양한 영상, 오디오 출력을 지원하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이미지와 음악도 감상이 가능한 본격적인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이다.

글 이은규 객원기자

컨버전스 디빅스플레이어 MD-35

멀티 코덱 플레이어로서 디빅스플레이어들은 차세대 플레이어란 예기들을 들어왔다. 디빅스나 MP3, JPEG와 같은 다양한 포맷을 재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 DVD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드디스크 타입의 플레이어들은 DVD 이미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격적으로도 DVD 플레이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디빅스플레이어는 그 태생의 특성 때문인지 사용하는 미디어도 각양각색. 그 중에서도 하드디스크 타입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것은 물론 대용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크기 또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

기 때문이다.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는 디비코의 디빅스와 얼마 전 리뷰로 포스팅 된 랩소디 등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최근 에이엘테크의 MG-35가 등장, 3.5인치 디빅스플레이어 시장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 제품은 기존 디빅스플레이어와 달리 제품에 내장된 랜포트를 통해 PC와 연결해, PC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또 3.5인치 HDD를 장착해 사용할 수도 있다. DivX · XviD · Mpeg1/2로 제작된 동영상 파일과 MP3 · OGG · wma · wav 음악파일, JPG 등 이미지 파일도 TV에서 재생할 수 있는 컨버전스 제품이다.



라운드 처리된 아담하고 귀여운 디자인

MG-35는 별도의 꾸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전면에 사용된 화이트 펄 색상은 이러한 느낌을 한층 배가시킨다. 전면의 화이트 펄 색상 위에는 투명 아크릴 패널이 설치해 단아한 느낌까지 더했다. 전면 베젤의 상단 부위와 하단 부위는 모두 라운딩 처리되어 동글동글 아담하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전면은 4 방향 커서 버튼과 중앙의 선택 버튼을 중심으로 아래쪽엔 세 개의 버튼이 장착돼 있다. 크롬 도금이 돼 있는 버튼은 깔끔한 인상을 주고 하단 부의 IR 포트와 3개의 LED 역시 MG-35의 디자인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필자 개인적으로 전면부의 디자인은 흠 잡을 데 없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리모컨 없이도 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설정은 본체의 버튼만으로도

충분하다. 버튼은 오목하게 패여 있으며, 감촉 또한 부드럽다. 다만 전면 베젤이 아크릴로 구성돼 있고 버튼 역시 크롬 도금돼 있어 사용상 지문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나, 대다수의 경우 리모컨을 이용하며 어떤 제품이든 지문이 남지 않는 제품은 없으므로 단점으로 보기엔 이유가 다소 빈약하다.

IR 센서도 깔끔하게 처리돼있으며 하단에는 전원 및 네트워크, HDD 작동 LED가 장착돼 있다. LED의 색상은 각각 빨강색과 주황색, 녹색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은은한 느낌으로 미디어 재생 시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

뒷면에는 다양한 단자들이 마련돼 있다. 대부분의 디빅스플레이어가 제공하는 것처럼 S-비디오 및 콤포지트, HD 컨버턴트는 물론 동축과 옵티컬 단자까지 지원한다. USB 포트와 함께 외부 IR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포트가 장착돼 있으며 다른 제품들과 차별되는 단자라고 하면 RJ45 이더넷 포트라고 볼 수 있다.

타제품과 비교해 M-35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네트워크 기능의 유무를 꼽을 수 있다. 크기의 제약으로 2.5인치 하드디스크 모델은 제외됐지만 이미 기존에 출시한 MG-100부터 시작된 네트워크 기능은 미디어게이트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MG-35는 외장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차후 차량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외부 IR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외장 어댑터를 사용함으로써 차후 차량용 패키지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측면에는 환풍구가 뚫려 있어 일정한 패턴으로 구성된 측면의 격자무늬는 질감을 보다 향상시키는 동시에 하드디스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도 겸한다. MG-35에는 냉각을 위한 별도의 냉각 팬이 장착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MG-35는 다른 3.5인치 디빅스

플레이어에 비해 1cm 정도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를 조금 더 여유롭게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냉각 팬을 사용하지 않고도 발열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타제품과 비교해 크기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냉각 팬의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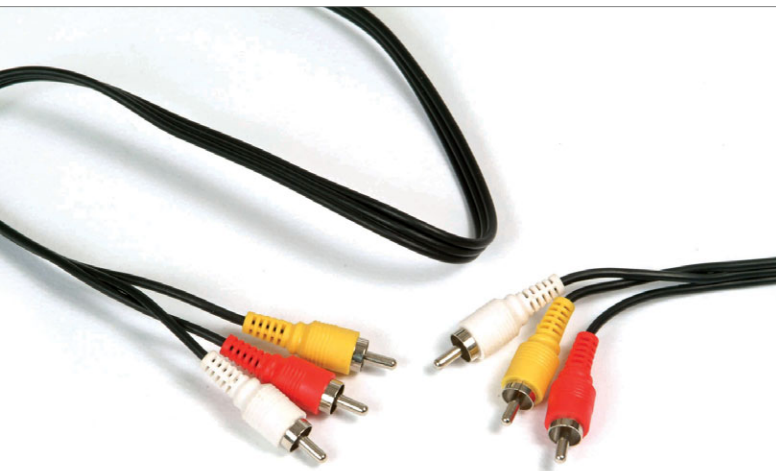
반대쪽 측면에는 미디어게이트 로고가 새겨져 있다. MG-35는 전체적으로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되는 스탠드는 라운딩 처리돼 있는 하단 부위와 딱 맞도록 설계된 U자 형태의 스탠드이며 본체에 흠집을 내지 않는 구조이다. 제품과 맞물리는 측면 부위에는 길다란 고무 물딩으로 처리돼 있어 본체와 안정적으로 맞물려 본체 뒷면에 여러 가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스탠드와 분리되지 않으며 또 고무 물딩처리 돼 있으므로 본체 자체에 흠집을 내지 않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또한 하단 부위에도 물딩 처리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다.

호환성 우수한 EM8511 장착

MG-35는 측면 패널을 분리해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으며, 측면에는 인테리어 볼트로 고정된다. 패널은 슬라이딩 구조로 이뤄져 패널과 본체와의 결합력이 보다 견고하다. 또한 별도의 드라이버 없이 동전이나 열쇠 등을 이용해 손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패널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전원 케이블과 IDE 케이블만 노출돼 있으며, 흰색 베이스가 하드디스크를 고정하는 하드디스크 가이드이다. MG-35는 별도의 볼트 없이 하드디스크를 고정할 수 있으며, 흰색 가이드 위에 하드디스크를 얹는 것만으로 하드디스크의 설치는 끝난다. 하드디스크 가이드의 네 귀퉁이는 돌출돼 있어 하



드디스크를 고정시켜준다. 아래와 같이 하드디스크 주위로 다소 여유를 두어 하드디스크의 발열에 대비했다. 제품의 두께에 비해 하드디스크의 두께는 얇으므로 측면 패널 안쪽에는 하드디스크를 눌러주기 위한 완충 패드가 부착돼 있다. 완충 패드는 하드디스크를 충격에서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고정시키는 역할도 겸한다. 이러한 고정 방식의 경우 완충 패드가 하드디스크를 누르는 압력에 의해 측면 패널이 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측면 패널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다.

하드디스크는 볼트를 이용해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설치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되지 않는 사용자들을 위해 하드디스크 가이드의 바닥 면에 하드디스크에 고정할 수 있는 볼트 홈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어차피 하드디스크를 수시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서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하드디스크 가이드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홈을 뚫는 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하드디스크 가이드를 제거하면 내부의 PCB를 살펴 볼 수 있는데, MG-35 역시 시그마 디자인의 리얼 매직 EM8511을 장착했다. 현재 출시된 대다수의 디빅스플레이어에 장착된 디코딩 프로세서로 현재까지는 가장 우수한 호환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DTS의 경우 Pass Through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동일하다.

또 다른 제품에는 없는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DAVICOM의 DM9000E가 장착됐다. DM9000E는 10/100의 IEEE 802.3x 사양을 모두 지원하는 MAC 컨트롤러이다.

리모컨 및 제품 구성

MG-35의 리모컨은 카드 타입으로 제작됐다. 얼마 전 선보인 랩소디의 리모컨과 비슷한 형태로 적당한 크기와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 가정에서나 차량에서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상단 부위는 커서 버튼과 엔터 버튼으로 구성돼 있으며, 메뉴 및 타이틀, 앵글, 반복 및 구간 반복 등 다양한 버튼이 장착돼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 커서 버튼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버튼들은 메뉴의 바로 가기 위한 허브라고 볼 수 있다.



재생 버튼이 다른 버튼에 비해 큰 크기로 구성돼 있고 재생 버튼 주위에는 빨리 감기와 되감기, 정지, 트랙 선택 등의 버튼으로 구성돼 있어 조작감이 우수하다. 볼륨 조절 버튼이 다소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나, 재생 중에는 커서 버튼의 상·하 버튼을 이용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MG-35는 외장 어댑터를 제공한다. 별도의 냉각 팬이 없는 MG-35의 경우 내부의 발열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축이라 볼 수 있는 전원부를 독립시켜 방열에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차량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장 어댑터를 사용하면 그만큼 번거로운 것도 사실이다. 본체와 더불어 어댑터를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전원 코드는 2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물론 하나는 TV 옆에, 하나는 PC 옆에 꼽아두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TV와 MG-35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은 컴포지트와 스테레오로 구성된 RCA 케이블만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다른 제품들 역시 동일한 구성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단점으로 볼 수는 없다. 색깔이 달라 다소 당황스러울 순 있어도 사용자에게 따라 컴포넌트 케이블로 전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PC와 연결하기 위한 USB 케이블도 제공된다. 🌐



MG-35